

# 학령기 아동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연구

##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Affecting Mobile Dependence in School-Aged Children

김혜원 (Hyewon Kim)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sup>1)</sup>
김혜린 (Hyerin Kim)	경북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sup>2)</sup>
이서현 (Seohyun Lee)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sup>3)</sup>
이새롬 (Saerom Lee)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sup>4)</sup>

### 〈 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령기 아동(만 7~9세)의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은 결과적으로 학교 적응 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연령대라는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e.g.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나 모바일에 대한 부모 양가감정, 그리고 부모 모바일 사용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두 시점에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 스트레스는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을 통해 결과적으로 학령기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 스트레스와 모바일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태도가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커니즘을 검증할 수 있었다.

주제어: 모바일 의존,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아동 학교적응, 모바일 중독

1) 제1저자, kimhw.knu@gmail.com

2) 공동저자, hrinsam3@gmail.com

3) 공동저자, suny8362@gmail.com

4) 교신저자, saeromlee@knu.ac.kr

## 1. 서론

최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모바일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Fu et al., 2023). Statista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미국의 성인의 경우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a, 2024). 모바일은 전화, 문자 메시지, 동영상 시청, 게임, 정보 검색 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편리성을 높여주었다(Roos & Wrzus, 2023). 반면에 모바일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모바일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Karaoglan et al., 2023; Ke et al., 2024). 모바일의 지속적인 사용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우울증이나 불안감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Tao et al., 2023).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게임중독, 소셜미디어 중독, 쇼핑중독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경우 대인관계나 사회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oqbel et al., 2023).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들은 가족 간의 소통이 끊기거나 학교나 직장에서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비롯한 기술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Venkatash et al., 2019). 개인용 컴퓨터, ERP,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해당 기술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연구가 조직과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바일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과 같이 기술 도입이 가지고 오는 어두운 면의 경우 최근 발생한 현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Moqbel et al., 2023). 특별히 다양한 기술 기반 중독 연구들에서는 중독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개인차원의 요인(e.g. 개인의 학력이나 성격, 나이, 성별 등)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Nikel et al., 2024; Sfeir et al., 2023). 그러나 최근에는 중독을 야기하는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독을 줄일 수 있는 요인 또한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교육기관, 부모의 역할, 친구 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Geng et al., 2021; Lai et al., 2022; Wang et al., 2023). 이러한 관점에서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중독에 대한 연구는 중독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외부요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부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요인 중 부모가 자녀의 모바일 사용에 대해서 느끼는 양가감정의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양가감정의 경우, 특정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심리적 기저로 해당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은 본인의 태도를 형성하거나 행동을 통하여 대처하는 노력을 한다. 모바일 사용의 경우 학령기 자녀가 콘텐츠를 학습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용도 혹은 유희를 위한 게임 플레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부모가 형성하는 모바일에 대한 태도가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부모의 심리적 상태를 개인의 평소 스트레스 정도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세분화 하여 조사함에 따라 양가감정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따라 자녀의 모바일 의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중독은 이후 청소년 및 청년 시기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2-5세 유아는 47.5%가 하루 2시간 이상의 스크린 시간을 보냈으며, 12-17세는 이 비율이 80.2%로 증가했다(CDC, 2022). 이 시기의 모바일 중독은 학업 성적 하락이나 사회적 고립, 공격적인 행동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령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아 및 청소년의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논의해 왔다. 주요 요인들은 주로 아동기 및 청소년 개인의 특성(Liu et al., 2024)이나 교우관계와 같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적 특성(Wei et al., 2024),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특성(Lai et al., 2022)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다른 연령보다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밝히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이 발달중인 아동의 경우, 스스로 통제하여 모바일을 사용하기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모바일 중독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외부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아동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향을 확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모바일기기 사용 자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소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아동들을 향후 소비의 주체로 인식하고, 학령기 아동들의 사용 행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애 주기 전체의 관점에서 고객에 대한 통찰력을 높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특성에 부모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아동의 모바일 의존은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모바일에 대한 부모 양가감정에 집중하여 이론을 검증하였으며, 정서적·행동적 특성으로는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개입 등을 함께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두 시점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수행한 후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시점 1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인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그리고 부모의 행동적인 특성인 부모의 개입을 측정하였으며, 시점 2에서는 종속변수인 아동의 모바일 의존과 아

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 2. 문헌 연구

### 2.1. 모바일 중독의 문제

모바일 중독은 “모바일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이용중기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김병년, 최홍일, 2013, p. 4). 즉 모바일 중독으로 인하여 조절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나 기능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기기사용에 대한 중독이 아니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중독, 채팅 중독, 음란물 중독, 가상공간에서의 관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용 대상이나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의 중독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병년, 최홍일, 2013).

모바일 중독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먼저 모바일 중독의 발생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연구들이 있다. 모바일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충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 외로움, 기존의 모바일 사용 시간, 사용 만족도 등 개인적 요인에 국한되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강주연, 2012; 박지선, 2011). 또한 중독을 야기하는 이유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특성도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차원의 환경이 모바일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황승일, 2013). 반대로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모바일에 대한 중독적 사용이 낮아짐을 검증하였다(최혜진 등, 2011). 이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모바일이 주는 단기적인 만족감을 통제하고 할 일을 수행했을 때 주어지는 장기적인 만족감을 지향하여 모바일 사용을 자제하는 데 자기통제력이 사용됨을 의미

한다(김병년, 최홍일, 2013).

둘째, 모바일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나 감독이 모바일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부모의 통제가 모바일 중독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의 경우, 부모가 통제 수준이 높고(윤영민, 2000) 일방적으로 지시 행동을 많이 하거나(조춘범, 2001) 과보호적으로 자녀 생활을 제한할수록 자녀의 자기 통제력이 낮아져(김병년, 최홍일, 2013) 모바일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개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통제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역으로 모바일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2017년 13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183명의 학생 대상 연구에서 부모님의 모바일 사용 통제에 대해서 인식한 학생일수록 모바일 중독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4.7배가량 높은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이은지 등, 2017). 그러나 부모가 삶의 전반을 개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양육태도와는 다르게 교육의 일환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다(Lee & Ogbolu, 2018).

## 2.2. 학교적응

학교적응이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동이 경험하는 학교라는 낯선 환경으로의 생태학적 전환(Bronfenbrenner, 1979)으로 또래, 교사와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적으로 잘 적응하여 학교환경과 개인 간에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다(추지윤, 이은지, 2020). 학교는 아동들이 처음 맞이하는 사회기관으로 또래,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곳으로 다양한 사회적 규범과 지식을 습득하며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학교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변화시키

거나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Bierman, 1994)으로 학교적응을 정의할 수도 있다.

학교는 전생애에서 인간의 발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Ladd & Asher, 1985; Parker & Asher, 1987)으로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들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긴 시간 동안 이어지거나 이후의 발달을 저해하며 더 악화될 수 있다(Butler et al., 1985; Coie & Dodge, 1983). 학교적응을 학습활동 적응, 친구 적응, 교사 적응의 세 하위 요인으로 살펴본 추지윤(2021)의 연구에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인지적,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 할수록 집행기능곤란을 덜 겪고, 더 행복하다고 보고한 김혜원(2023)의 연구에서도 학교적응이 아동의 인지, 정서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학교적응은 아동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한국방정환재단, 2022)에서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에 불과했는데, 2020학년도 학년별 학업중단율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의 학업중단율이 0.9%로 가장 높았다(교육통계, 2021). 특히,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행복감 간의 관계를 자기회귀교차자연모형을 통해 살펴본 김혜원(202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이전 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 시점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기 어려워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역할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추지윤, 2022) 학령 초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과 위협 요인을 파악하여 아동이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적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증상과 관련된 요인을 연구한 Kliesener et al. (2022)의 연구에서는 적응, 가상 존재, 금단, 통제를 포괄하는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증상을 많이 보일 경우, 삶의 질이 낮고, 더 많은 행동 장애를 보이며, 학교 성적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조은정 등 (2020)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차 어려짐에 따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혜주 (2012)는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낮을수록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준수와 같은 학교적응 요인이 높아진다고 밝혔으며, 미디어 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최효식, 연은모 (2023)는 초등학생의 미디어 기기 중독도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들을 종합하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인 초등학생도 미디어 기기 중독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학교라는 사회로 발돋움한 아동들이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또래 및 교사와 잘 소통하며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3. 양가감정

양가감정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동시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Nordgren et al., 2006). 양가적 감정의 대상은 사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람이나 상황, 사회분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특정 행위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감정이 뒤섞여 있어 결과적으로 애증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가감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며, 주로 양가감정이 형성될 경우, 해당 대상으로부터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부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연구되었다(van Harreveld et al., 2009). 또한 양가감정의 경우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감정 중 하나는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Colby & Parasuraman, 2001; Parasuraman, 2000), 양가감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대처전략과 관련하여 양가감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Rothman et al., 2017).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경영학분야에서는 신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양가감정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Lenka et al., 2018; Qahri-Saremi & Montazemi, 2019).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수용 반응(Qahri-Saremi & Montazemi, 2019)와 레저시 시스템 사용에 의한 행동적 관성(inertia) 형성(Lenka et al., 2018) 등에 의한 수용 거부 의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지적으로 신기술의 장점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동시에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가감정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 도입에 대한 양가적 감정에 대하여 모바일 기기(Mazmanian et al., 2013), 온라인 리뷰 플랫폼(Qahri-Saremi & Montazemi, 2019) 등과 같이 다양한 기술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경험이 양립되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이은경 등 (2021)에서는 온라인 채널에서 양가적 감정이 발생하면 제품에 대한 태도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지 유연성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양가적 감정에 대해서 사용하는 대처 전략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밝혔다(Rothman et al., 2017). 인지 유연성은 이용 가능한 대안 및 선택사항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문제상황을 회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에 맞게 사고 및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 정도를 의미한다(Dennis & Vander Wal, 2010). 본 연구는 육아를 편안하게 해주고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보유한 모바일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동시에 자녀의 모바일 중독을 우려하는 부모 양가감정이 실제 아이들의 모바일 시청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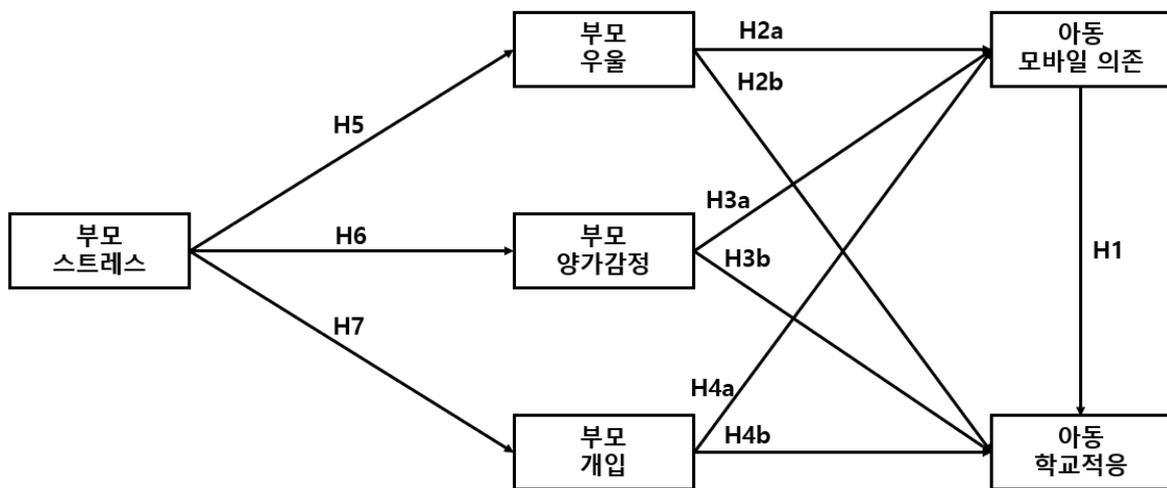
### 3. 연구모델 및 가설수립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서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적 특성을 집

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로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을 설정하였다. 또한 모바일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부모 양가감정, 그리고 부모의 개입과 같은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사용에 대한 부모의 행동적 특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평소 스트레스가 부모 우울, 부모의 모바일에 대한 양가감정, 그리고 부모의 모바일 사용에 대한 개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매개변수들이 결과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 4. 가설

모바일과 같은 미디어기기에 의존하며, 미디어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함을 느끼는 등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미디어기기 중독(김형지 등, 2012)은 자기조절능력이 미숙한 아동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유



<그림 1> 연구모델

아에서 아동으로 넘어가는 초등 저학년인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학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래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학교적응(Ladd et al., 1996)은 그 시기 아동이 이루어야 할 새로운 발달 과업이다. 하지만, 미디어기기에 많이 의존할수록, 학교적응에 있어 여러 가지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컴퓨터 사용과 관련한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교사와의 적응, 또래와의 적응, 학업 적응 및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였고(이경숙, 조복희, 2007), 높은 모바일 중독을 나타내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진, 2019; 엄윤섭, 최은실, 2018).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 적응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이경남(2021)의 연구에서 미디어기기 중독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행복감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모바일 의존이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부모 우울은 가정 내의 정서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행동 및 정서적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울한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줄이거나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Psychogiou & Parry, 2014),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은 정서적 지지를 찾기 위해 모바일 기기와 같은 대체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Zhen et al., 2023). 모바일 기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므로 부모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모바일 기기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유숙경 등, 2018). 그러므로 부모 우울이 심화될수록 아동이 모바일 기기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a. 부모 우울이 커질수록 아동 모바일 의존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b. 부모 우울이 커질수록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양가감정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양가감정이 강할수록 부모는 일관된 양육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모바일기기 사용과 관련된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우울한 어머니는 아동의 요구에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의 능력이 저해되어, 우울증이 있는 부모 중 68%가 부모 역할에 비효율적이라고 보고되었다(Crnic & Greenberg, 1990). 이러한 경우, 아동은 감정적 지지와 안정성을 찾기 위해 모바일 기기와 같은 대체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유숙경 등, 2018). 모바일 기기는 아동에게 즉각적인 만족감과 탈출구를 제공하며, 이는 아동이 실제 세계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Zhen et al., 2019). 그러므로 양가감정이 높은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3a. 부모 양가감정이 커질수록 아동 모바일 의존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b. 부모 양가감정이 커질수록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Lee and Ogbolu (2018)에서는 부모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통제가 모바일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Lin et al. (2009)에서 부모님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감시가 인터넷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감독하에 있지 않는 시간

동안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 2013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가족 계획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다 (Siddiq & Grainger, 2015). 이는 큰 맥락에서 여가시간에 대한 부모의 개입을 의미하며, 여가시간동안 자녀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입하는 동시에 모바일을 적절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모바일 중독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Lin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개입이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을 낮추고 학교 적응 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설 4a. 부모 개입이 커질수록 아동 모바일 의존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4b. 부모 개입이 커질수록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트레스는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과도할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라는 역할은 많은 책임과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자녀 양육의 책임, 경제적 부담, 개인시간의 부족, 대인 관계 변화 등의 요인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Lazarus & Folkman, 1984), 자녀 양육과 관련된 활동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의무에 대한 부정적 심리적 반응은 부모 스트레스로 정의되어 왔다 (Bornstein, 2002).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누적되고 부모가 이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이는 우울로 발전할 수 있다. 우울증은 기분장애의 일종으로, 지속적인 슬픔과 흥미 상실, 에너지 부족 등의 특징이 있다. Barańczuk and Pisula (2022)는 부모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긍정적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부모 스트레스

로 인해 촉진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반응으로 우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5. 부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 우울이 높아질 것이다.

양가감정은 어떤 동일대상에 대한 모순된 상반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감정은 서로 모순되면서도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기 힘들다(Fingerman et al., 2006; 2008).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양가감정이 대상에 대한 양면된 감정을 유발하므로 개인이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이르게 하는 정서적 긴장 상태라고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양가감정 자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며(King & Emmons, 1990), 대상에 따라서 양가감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이신숙 (2013)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양가감정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이보람 등 (2023)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금융권에서 직원들이 가지는 양가감정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양가감정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기에 신경증이 양가감정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Fingerman et al., 2006; 2008). 그러나 양가감정은 항상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수록 자녀의 모바일 사용에 대한 양가감정이 커질 것이라고 전제하였다(Ha & Ingersoll-Dayton, 2008). 부모들은 자녀 양육 상황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모바일 기기 사용을 허용 해주었을 때 부모는 자녀가 손쉽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시청하니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걱정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일수록

자녀에게 신경을 써줄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모바일 기기 사용을 허용해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 즉 양가감정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6. 부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 양가감정이 커질 것이다.

부모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Rodgers, 1998).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 많은 간섭과 통제를 할 수 있다. 부모가 더 큰 양육스

트레스를 받을수록 자녀에게 강압적인 양육행동, 즉 개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김미숙, 문혁준, 2005).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숙재, 정문자, 1997). 또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자녀의 작은 문제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우정애, 김성봉, 2014). 따라서 부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령기 아동에 대한 개입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7. 부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 개입이 높아질 것이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연령	20대	4	1.3
	30대	91	30.3
	40대	185	61.7
	50대 이상	20	6.6
학력	초등 졸	1	0.3
	중등 졸	2	0.7
	고등 졸	21	7.0
	전문대 졸	56	18.7
	대학 졸	197	65.7
	대학원 졸	23	7.7
지역	서울특별시	92	30.7
	부산광역시	25	8.3
	대구광역시	12	4.0
	인천광역시	16	5.3
	광주광역시	7	2.3
	대전광역시	11	3.7
	울산광역시	7	2.3
	경기도	80	26.7
	강원특별자치도	5	1.7
	충청북도	6	2.0
	충청남도	5	1.7
	전북특별자치도	8	2.7
	전라남도	3	1.0
	경상북도	7	2.3
	경상남도	11	3.7
	제주특별자치도	1	0.3
세종특별자치시	4	1.3	

구분	사례수(명)	비율(%)
월 가계 총 소득 (단위:만원)	200	3.4
	300	6.7
	400	13.3
	500	16.0
	600	12.7
	800	12.0
	900	9.3
	1~000	3.7
	1000 이상	9.0

〈표 2〉 부모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

요인	문항수
부모스트레스	24
부모 우울	6
부모 양가감정	3
부모 개입	3
T2 아동 모바일 의존	7
T2 아동 학교적응	35

## 5. 데이터 분석

### 5.1. 측정항목

부모 스트레스는 이경숙 등 (2000)을 참고하여 역할제한, 우울감, 사회적 고립, 건강, 배우자 관계 관련 항목을 총 2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 우울은 Kessler et al. (2002)을 참고하여 지난 30일간 우울감을 느낀 정도 관련 항목을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 양가감정은 Qahri-Saremi & Montazemi (2019)을 참고하여 부모가 아동의 모바일 동영상 시청에 대하여 가지는 양가감정 관련 항목을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 개입은 Venkatesh et al. (2019)을 참고하여 부모가 아동의 모바일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는 정도를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동 모바일 의존은 이시형 등 (2002)을 참고하여 부모가 아동의 모바일 의존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7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학교 적응은 지성애, 정대현 (2006)을 참고하여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에 관한 항목을 총 3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는 부모의 학력을 고려하였다. 부모학력의 경우, 모바일 사용에 대한 인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력으로 인하여 형성하고 있는 개인의 삶에서 오는 사회적 위치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 5.2. 자료수집

조사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최종 측정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문을 T1과 T2로 두 시점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업체인 엔트러스트 서베이를 통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2~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2023년 7월 21일에 설문문을 배포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

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외부 요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행동적 특성과 관련하여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과 같은 변인을 조사하였다. 이를 후인 2023년 7월 23일에 수행한 두 번째 설문 조사에서는 참가자가 자신의 자녀를 떠올리며 아동 모바일 의존 정도와 학교 적응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결과, 첫 번째 시점(T1)에는 373명, 두 번째 시점(T2)에서는 300명이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두 시점에 모두 응답한 참가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300부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설문 응답 시에 무작위 문항 제시 및 일자 찍기 방식을 시행하여 불성실한 응답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 5.3.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은 T1, T2에서 모두 응답한 300개의 데이터를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로, 연령은 20대가 4명(1.3%), 30대가 91명(30.3%), 40대가 185명(61.7%), 50대가 19명(6.3%), 60대가 1명(0.3%)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197명으로 65.7%를 차지하였으며, 전문대 재학 및 졸업(56명, 18.7%), 대학원 재학 및 졸업(23명, 7.7%),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21명, 7.0%)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주거지역은 서울이 92명으로 30.7%를 차지하였으며, 경기도(80명, 26.7%), 부산(25명, 8.3%), 인천(16명, 5.3%), 대구(12명, 4.0%)순으로 나타났다. 월 가계 총 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7명(2.4%)이었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20명(6.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40명(13.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48명(16.0%), 500만원 이상이 188명(62.7%)으로 집계되었다.

<표 2>에서는 설문에서 사용한 문항 구성을 요약한 것이다. 부모스트레스는 24문항, 부모 우울 6문항, 부모 양가감정 3문항, 부모 개입 3문항, 아동 모바일 의존 7문항, 아동 학교적응 35문항으로 총 78문항을 사용하였다.

### 5.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검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아동의 모바일 의존, 아동의 학교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표 3> 참조),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사를 수행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요인 신뢰도의 경우 기준인 0.7이 나타났으며 AVE 값의 경우 0.5 이상이 나타났다. 또한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HTMT와 Fornell-Larcker criterion을 분석하였다 (<표 4, 5> 참조). 마지막으로 동일방법편의의 위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VIF 값을 구한 결과 모두 4이하로 위배한 변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또한 부모 스트레스, 우울, 양가감정, 개입, 아동의 모바일 의존,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SEM)을 분석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값과 적합도 지수(CFI, TL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user-defined estimand (AMOS Development Corporation, 2010)를 활용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 5.5.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T1 시점의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T2 시점의 아동 모

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의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는 <표 3>, <표 6>과 같다. 먼저, 연구 변인들의 왜도는 절댓값 기준 .06~.45, 첨도는 .038~.672으로 나타나 왜도의 절댓값이 2 이하, 첨도의 절댓값이 7 이하

<표 3> 기술통계 (N=300)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부모 스트레스	1.34	6.31	3.6937	0.87062	.915	.835	.594
부모 우울	1.00	7.00	3.0128	1.37772	.927	.930	.736
부모 양가감정	1.33	6.67	4.3044	0.99043	.712	.722	.634
부모 개입	1.00	7.00	4.6756	1.25046	.753	.828	.671
아동 모바일 의존	1.00	6.57	4.0157	1.34107	.899	.930	.671
아동 학교적응	3.18	6.93	5.1527	0.70228	.954	.740	.608

<표 4> 판별타당도 분석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N=300)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아동 모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649					
부모 양가감정	.400	.329				
부모 개입	.170	.066	.228			
아동 모바일 의존	.304	.367	.478	.120		
아동 학교적응	.472	.373	.204	.189	.496	

<표 5> 판별타당도 분석 (Fornell-Larcker criterion) (N=300)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아동 모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
부모 스트레스	.771					
부모 우울	.575	.858				
부모 양가감정	.317	.271	.796			
부모 개입	.129	-.038	.166	.819		
아동 모바일 의존	.274	.345	.381	-.088	.819	
아동 학교적응	-.359	-.318	-.151	.151	-.449	.780

<표 6> 상관관계 (N=300)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아동 모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
부모 스트레스	1					
부모 우울	.569**	1				
부모 양가감정	.314**	.270**	1			
부모 개입	.124*	-.032	.168**	1		
아동 모바일 의존	.275**	.340**	.387**	-.073	1	
아동 학교적응	-.296**	-.313**	-.142*	.230**	-.248**	1

로 정규성을 확인하였다(Kline, 2011). 또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T1 부모 우울과 T1 부모 개입, T1 부모 개입과 T2 아동 모바일 의존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스트레스가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아동의 모바일 의존을 통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7>와 같이  $\chi^2=33.141(p=.000)$ ,  $GFI=.971$ ,  $TLI=.810$ ,  $CFI=.919$ ,  $RMSEA=.095$ 로 Hu and Bentler (1999)가 제안한  $TLI \geq .90$ ,  $CFI \geq .90$ ,  $RMSEA \leq .10$ 에 부합하여, 연구모형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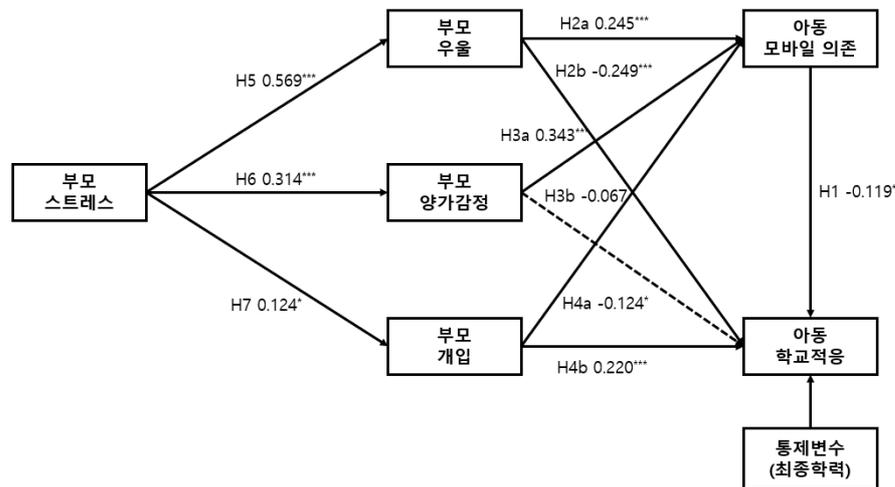
T1 시점의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T2 시점의 아동 모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고, 구체적인 경로계수는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T2 아동 모바일 의존이 T2 아동 학교적응( $\beta = -.119$ ,  $p < .05$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T1 부모 우울이 T2 아동 모바일 의존( $\beta = .245$ ,  $p < .001$ ), T2 아동 학교적응( $\beta = -.249$ ,  $p < .001$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T1 부모 양가감정이 T2 아동 모바일 의존( $\beta = .343$ ,  $p < .001$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T2 아동 학교적응( $\beta = -.067$ , ns)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1 부모 개입이 T2 아동 모바일 의존( $\beta = .124$ ,  $p < .05$ ), T2 아동 학교적응( $\beta = .220$ ,  $p < .001$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우울( $\beta = .569$ ,  $p < .001$ ), T1 부모 양가감정( $\beta = .314$ ,  $p < .001$ ), T1 부모 개입( $\beta = .124$ ,  $p < .05$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였다.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각 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경로의 간접효과

<표 7> 모델 적합도

$\chi^2$	p	df	$\chi^2/df$	GFI	CFI	TLI	RMSEA
33.141	.000	9	3.682	.971	.810	.919	.095



<그림 2> 가설 검증 결과

유의성을 살펴보면, T1 스트레스가 T2 아동 모바일 의존 ( $\beta=.232, p<.01$ ), T2 아동 학교적응( $\beta=-.163, p<.01$ )에 이르는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T1 부모 우울이 T2 아동 학교적응( $\beta=-.029, p<.05$ )에, T1 부모 양가감정이 T2 아동 학교적응( $\beta=-.041, p<.05$ )에, T1 부모 개입이 T2 아동 학교적응( $\beta=.015, p<.05$ )으로 가는 간접경로도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설정된 매개효과는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ion model)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개변

인 각각의 간접효과가 추정되어야 하나, AMOS의 bootstrapping 방법은 전체 간접효과와 그 유의성을 제시하고 있어, T1 부모 스트레스가 T2 아동의 학교적응으로 이르는 경로에서 부모 우울, 양가감정, 개입 및 아동의 모바일 의존의 매개효과를 알아보하고자 AMOS user-defined estimand를 활용한 추가분석을 통해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별 경로인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우울을 매개로 T2 아동 모바일 의존에 이르는 경로(A),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우

〈표 8〉 가설 검증 결과

	Path	$\beta$	B	S.E.	C.R.
H1	T2 아동 모바일 의존 → T2 아동 학교적응	-.119	-.062	.031	-1.982*
H2a	T1 부모 우울 → T2 아동 모바일 의존	.245	.237	.051	4.696***
H2b	T1 부모 우울 → T2 아동 학교적응	-.249	-.126	.028	-4.435***
H3a	T1 부모 양가감정 → T2 아동 모바일 의존	.343	.463	.070	6.596***
H3b	T1 부모 양가감정 → T2 아동 학교적응	-.067	-.047	.041	-1.153
H4a	T1 부모 개입 → T2 아동 모바일 의존	-.124	-.132	.055	-2.411*
H4b	T1 부모 개입 → T2 아동 학교적응	.220	.122	.030	4.090***
H5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우울	.569	.900	.075	11.953***
H6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양가감정	.314	.358	.062	5.724***
H7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개입	.124	.178	.082	2.156*

Note: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표 9〉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Path	Direct	Indirect	Total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우울	0.569*		0.569*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양가감정	0.314**		0.314**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개입	0.124**		0.124**
T1 부모 우울 → T2 아동 모바일 의존	0.245**		0.245**
T1 부모 양가감정 → T2 아동 모바일 의존	0.343**		0.343**
T1 부모 개입 → T2 아동 모바일 의존	-0.124*		-0.124*
T1 부모 스트레스 → T2 아동 모바일 의존		0.232**	0.232**
T2 아동 모바일 의존 → T2 아동 학교적응	-0.119		-0.119
T1 부모 우울 → T2 아동 학교적응	-0.249**	-0.029*	-0.278**
T1 부모 양가감정 → T2 아동 학교적응	-0.067	-0.041*	-0.107
T1 부모 개입 → T2 아동 학교적응	0.22**	0.015*	0.235**
T1 부모 스트레스 → T2 아동 학교적응		-0.163**	-0.163**

Note: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울과 T2 아동 모바일 의존을 순차 매개하여 T2 아동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B),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우울을 매개로 T2 아동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C),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양가감정을 매개로 T2 아동 모바일 의존에 이르는 경로(D),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양가감정과 T2 아동 모바일 의존을 순차 매개하여 T2 아동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E),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개입을 매개로 T2 아동 모바일 의존에 이르는 경로(G),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개입과 T2 아동 모바일 의존을 순차 매개하여 T2 아동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H),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개입을 매개하여 T2 아동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I)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10> 참조). 다만,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양가감정을 매개하여 T2 아동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F)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표 8> 참조). 한편, 종속변인이 독립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상관자승값(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산출한 결과, T1 부모 우울은 32.3% 설명되고, T1 부모 양가감정 9.9%, T1 부모 개입 1.5%, T2 아동 모바일 의존 21.6%, T2 아동 학교적응은 15.7%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 적응과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부의 요인인 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기존 대다수의 연구들이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이나 또래 집단에 집중하여 연구를 검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바일 의존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검증했던 외부 요인 중 부모의 특성을 심리적 상태, 아동의 모바일에 대한 부모의 태도, 그리고 아동의 모바일 사용에 대한 부모의 개입으로 세분화하여 검증하였다는데 있어서 모바일 의존 관련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모바일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의 경우 양가감정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양가감정의 경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로 양가감정이 유발되는 대상이 존재할 경우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양가감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양가감정을 보유한 개인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처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증하였다(Qahri-Saremi & Montazemi,

<표 10> 매개효과 분석

	Path	B	S.E.	95% CL	
				LL	UL
A	부모 스트레스 → 부모 우울 → 아동 모바일 의존	0.213**	0.050	0.137	0.301
B	부모 스트레스 → 부모 우울 → 아동 모바일 의존 → 아동 학교적응	-0.013*	0.008	-0.029	-0.003
C	부모 스트레스 → 부모 우울 → 아동 학교적응	-0.113**	0.031	-0.165	-0.065
D	부모 스트레스 → 부모 양가감정 → 아동 모바일 의존	0.165**	0.044	0.101	0.245
E	부모 스트레스 → 부모 양가감정 → 아동 모바일 의존 → 아동 학교적응	-0.010*	0.006	-0.024	-0.002
F	부모 스트레스 → 부모 양가감정 → 아동 학교적응	-0.017	0.017	-0.05	0.007
G	부모 스트레스 → 부모 개입 → 아동 모바일 의존	-0.023*	0.016	-0.061	-0.006
H	부모 스트레스 → 부모 개입 → 아동 모바일 의존 → 아동 학교적응	0.001*	0.001	0	0.005
I	부모 스트레스 → 부모 개입 → 아동 학교적응	0.022*	0.012	0.006	0.047

Note: \* $p < .05$ , \*\* $p < .01$ , \*\*\* $p < .001$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가감정이나 부모 우울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결과적으로 아동의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타인의 양가감정이 기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여 대상이 되는 타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양가감정과 관련된 연구의 연구 대상을 확장하였다는 데 이론적 기여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령기 자녀의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직접적으로 자녀를 훈육하거나 사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인 부모의 심리적 상태나 기술에 대한 태도에 집중해서 연구모형을 설정했다는 점이 광범위한 자녀의 주변환경의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부모의 경우, 장시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본인의 모습을 자녀의 생애 전 과정에 있어서 모방의 대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바 모바일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태도 혹은 삶 속에서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등이 다방면적으로 자녀의 모바일 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양가감정과 같이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부모의 태도의 중요성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의존은 모바일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Seo et al., 2016), 모바일 의존성이 드러나는 시점부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바일 의존을 낮추기 어려운 학령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태도와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학령기 아동들의 모바일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바일 사용에 대한 확고한 태도 및 행동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요구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부모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여점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뿐만 아니라 모바일 의존이 결과적으로 학교 적응 등에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 있어서 학교 차원에서도 모바일 의존도가 높은 학령기 아동들에 대하여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나 행동적 제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 변수들을 제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 정도 및 학교 적응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아동의 모바일 사용에 대한 현황을 간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학교 적응과 모바일 의존 정도라는 점에 있어서 아동의 실제 적응 정도나 모바일 사용을 측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다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부모와 아이에게 동시에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점수 차이가 적은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객관적 데이터로서 실제 모바일을 사용한 시간을 2차 데이터로 수집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부모를 통한 간접적인 설문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과 관련된 외부 환경적인 변수로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의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또래 관계 친구나 교사, 모바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 외부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경우 또래 집단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사회적 학습 이론에 따르면, 또래들이 모바일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모바일에

대한 의존을 강하게 하고 있는 가까운 또래가 있는지에 따라서 아동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또래 집단의 행동과 같이 아동의 모바일 의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변수의 경우 향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집단의 영향을 고려하여 집단간의 영향력 차이를 보는 방향으로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이상의 관계로 확장하여 가족 내의 형제 자매의 행동 등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의 구조적 형태와 그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고려로 연구 결과는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의 반응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완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로서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학교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반응이나 교사가 제시하는 모바일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및 학업에 대한 의욕 고취 등이 학교 생활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바 이러한 한계점을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한 향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상태로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스트레스의 경우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심리적 상태로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로서 개인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갈이나 부부간의 관계 혹은 업무의 강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부모의 모바일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 스트레스 이외의 부모의 심리적 상태나 육체적 상태에 대한 변수들을 확장해나갈 필요성

이 있다.

나아가, 부모의 스트레스의 경우 다양한 원인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모바일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인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부모의 정확한 심리 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모의 양가적인 행동이 새로운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가감정이 야기되는 시점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른 대처 전략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모바일 사용에 대한 태도로서 양가감정을 드러내거나 회피하는 반응들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 자녀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모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학령기 자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또한 향후 연구에서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통제변수로서 인구통계학적 요소 중 부모의 학력을 고려하여 모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가 주로 어머니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연령이나 임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1. 강주연 (2012). **직장인의스트레스와스트레스대처방식,충동성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3. 김병년, 최홍일 (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25.
4.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 요인과 이용 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 55-93.
5. 김혜원 (2023).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및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박영진 (2019). 개인, 가족, 사회변인이 초등학교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설명력. **아동교육**, 28(1), 39-57.
7. 박지선 (2011).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신숙재, 정문자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9. 엄윤섭, 최은실 (2018).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와 자기통제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2), 297-307.
10. 우정애, 김성봉 (2014).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5(2), 865-885.
11. 유숙경, 김진숙, 박영진 (2018). 부모양육태도,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이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2), 145-161.
12. 윤영민 (2001).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행동: 정책개발을 위한 이론적 탐색. **청소년학연구**, 8(2), 199-228.
13. 이경남 (2021). 아동의 자아존중감,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925-949.
14. 이경숙, 조복희 (2007). 초등학교 3·4 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

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2), 47-57.

15. 이경숙, 엄현경, 신윤오 (2000). 한국형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 (Parenting Stress Index)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1(1), 70-78.
16. 이보람, 김혜린, 이새롬 (2023). 양가적 감정이 신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에 미치는 영향: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4(3), 149-172.
17.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 & 양지윤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8. 이신숙 (2013). 노부모가 인지하는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2(6), 633-647.
19. 이은경, 전중옥, 최옥희 (2021).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양가감정 유발에 따른 소비자 반응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망연구저널**, 35(8), 189-201.
20. 이은지, 김윤경, 임수진 (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4), 525-533.
21. 조은정, 김예진, 권은비, 이동훈 (2020). 고등학교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불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193-203.
22. 조춘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인문계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추지윤, 이은지 (2020). 고등학교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경기교육중단연구 (GEPS)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40(4), 261-285.
24. 추지윤 (2022).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적응에 대한 다층 잠재프로파일 및 영향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 황승일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외 문헌]

26. Barańczuk, U., & Pisula, E. (2022). Parental stres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 preliminary re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68(4), 445-453.

27.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NJ: John Wiley & Sons.
28. Bornstein, M. H. (2022). Parenting infants. In: Bornstein MH, editor,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9.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30. Butler, S. R., Marsh, H. W., Sheppard, M. J., & Sheppard, J. L. (1985).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of the early prediction of reading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3), 349–361.
31. CDC, 2022 (CDC, QuickStats: Percentage of Children Aged 2-17 Years With 2 Hours of Screen Time Per Weekday, § by Sex and Age Group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United States, 2020,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01.21.2022, Retrived at <https://www.cdc.gov/mmwr/volumes/71/wr/mm7103a6.htm>)
32.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3), 261–282.
33. Colby, C. L., & Parasuraman, A. (2001). *Techno-ready marketing: How and why customers adopt technology*. Simon and Schuster.
34.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35. Dennis, J. P., & Vander Wal, J. S. (2010). Th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Instrument development and estimat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 241–253.
36. Fingerman, K. L., Chen, P. C., Hay, E., Cichy, K. E., & Lefkowitz, E. S. (2006). Ambivalent reactions in the parent and offspring relationship.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3), 152–160.
37. Fingerman, K. L., Pitzer, L., Lefkowitz, E. S., Birditt, K. S., & Mroczek, D. (2008). Ambivalent relationship qualities between adults and their parents: Implications for the well-being of both parti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6), P362–P371.
38. Fu, S., Cai, Z., Lim, E. T., Liu, Y., Tan, C. W., Lin, Y., & Deng, S. (2023). Unraveling the effects of mobile application usage on users' health status: Insights from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24*(2), 452–489.
39. Geng, J., Lei, L., Ouyang, M., Nie, J., & Wang, P. (2021).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phubbing on adolescents' problematic smartphone use: A two-wave multiple mediation model. *Addictive Behaviors, 121*, 106995.
40. Ha, J. H., & Ingersoll-Dayton, B. (2008). The effect of widowhood on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1), S49–S58.
41.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42. Karaoglan Yilmaz, F. G., Avci, U., & Yilmaz, R. (2023). The role of loneliness and agg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Current Psychology, 42*(21), 17909–17917.
43. Ke, Y., Liu, X., Xu, X., He, B., Wang, J., Zuo, L., ... & Yang, G. (2024).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smartphone addiction of Chinese college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14*, 1256743.
44. Kessler, R. C., Andrews, G., Colp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45.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4), 67–75.
46. Kliesener, T., Meigen, C., Kiess, W., et al. (2022). Associations between problematic smartphone use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quality of life, and school performanc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BMC Psychiatry, 22*, 195.

47.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48. Ladd, G. W., & Asher, S. R. (1985). Social skill training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In *Handbook of social skills training and research* (pp. 219–244). New York: Wiley.
49. Lai, X., Huang, S., Nie, C., Yan, J. J., Li, Y., Wang, Y., & Luo, Y. (2022). Trajectory of problematic smartphone use among adolescents aged 10–18 years: The roles of childhood family environment and concurrent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2*, 577–587.
50.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51. Lee, E. J., & Ogbolu, Y. (2018). Does parental control work with smartphone addiction?: A cross-sectional study of children in South Korea. *Journal of Addictions Nursing, 292*, 128–138.
52. Lenka, S., Parida, V., Sjödin, D. R., & Wincent, J. (2018). Towards a multi-level servitization framework: Conceptualizing ambivalence in manufacturing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38*(3), 810–827.
53. Lin, C., Lin, S., & Wu, C. (2009). The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leisure boredom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dolescence, 44*(176).
54. Liu, L., Wu, X., Yang, Z., Li, D., Xiao, W., & Zhu, F. (2024). How doe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trengthen the effects of risk factors for mobile phone addic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loneliness and school connection. *Current Psychology, 1*–12.
55. Mazmanian, M., Orlikowski, W. J., & Yates, J. (2013). The autonomy paradox: The implications of mobile email devices for knowledge professionals. *Organization Science, 24*(5), 1337–1357.
56. Moqbel, M., Nevo, S., & Nah, F. F. H. (2023). Unveiling the dark side in smartphone addiction: Mediation of strain and moderation of hedonic use on well-being. *Internet Research, 33*(1), 12–38.
57. Nikel, L., Kolańska-Stronka, M., & Krasa, P. (2024). Personality traits, internet addiction, and phubbing among teens: A mediation analysis.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1*–14.
58. Nordgren, L. F., Van Harreveld, F., & Van Der Pligt, J. (2006). Ambivalence, discomfort, and motivated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252–258.
59. Parasuraman, A. (2000). Technology Readiness Index (TRI) a multiple-item scale to measure readiness to embrace new technologies. *Journal of Service Research, 2*(4), 307–320.
60. Parker, J., & Asher, S.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inter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ance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61. Psychogiou, L., & Parry, E. (2014). Why do depressed individuals have difficulties in their parenting role? *Psychological Medicine, 44*(7), 1345–1347.
62. Qahri-Saremi, H., & Montazemi, A. R. (2019).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of an electronic word of mouth messag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6*(3), 969–1001.
63. Rodgers, A. Y. (1998). Multiple sources of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6), 525–546.
64. Roos, Y., & Wrzus, C. (2023). Is the smartphone friend and foe? Benefits and costs of self-reported smartphone use for important life domains in a representative German sample. *Current Psychology, 42*(28), 24717–24731.
65. Rothman, N. B., Pratt, M. G., Rees, L., & Vogus, T. J. (2017). Understanding the dual nature of ambivalence: Why and when ambivalence leads to good and bad outcomes.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11*(1), 33–72.
66. Seo, D. G., Park, Y., Kim, M. K., & Park, J. (2016). Mobile phone dependency and its impacts on adolescents' social and academic behavio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3*, 282–292.
67. Sfeir, E., Hallit, S., Akel, M., Salameh, P., & Obeid, S. (2023). Smartphone addiction and personality traits among Lebanese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Psychology, Health & Medicine, 28*(5), 1190–1200.
68. Siddiq, S., & Grainger, J. (2015). The diagnosis and

- management of acute otitis media: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Guidelines 2013.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Education and Practice*, *100*(4), 193-197.
69. Tao, Y., Tang, Q., Zou, X., Wang, S., Ma, Z., Zhang, L., & Liu, X. (2023). Effects of attention to negative information on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missing outFoMO,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Evidence from a two-wave moderation network analysi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48*, 107920.
70. Van Harreveld, F., Rutjens, B. T., Rotteveel, M., Nordgren, L. F., & Van Der Pligt, J. (2009). Ambivalence and decisional conflict as a cause of psychological discomfort: Feeling tense before jumping off the f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1), 167-173.
71. Venkatesh, V., Sykes, T., Chan, F. K., Thong, J. Y., & Hu, P. J. (2019).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family-to-work conflict, and job outcomes: A study of parent-child dyads. *MIS Quarterly*, *43*(3), 903-927.
72. Wang, X., Qiao, Y., & Wang, S. (2023). Parental phubbing, problematic smartphone use, and adolescents' learning burnout: A cross-lagged panel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20*, 442-449.
73. Wei, J., Dang, J., Mi, Y., & Zhou, M. (2024). Mobile phone addiction and social anxiety among Chinese adolescents: Mediating role of interpersonal problems. *Anales de Psicología/Annals of Psychology*, *40*(1), 103-109.
74. Zhen, R., Li, L., Li, G., & Zhou, X. (2023).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mobile phone dependence among adolesc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ole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21*(3), 1931-1945.
75. Zhen, R., Liu, R. D., Hong, W., & Zhou, X. (2019). How d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elieve adolescents'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The roles of loneliness and motivation to use mobile phon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3), 2286.
- from 2016 to 202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30695/number-of-smartphone-users-worldwide/>

[URL]

76. Statista. (2024). *Number of smartphone users worldwide*

## 저 자 소 개



### 김 혜 원 (Hyewon Kim)

현재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다.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및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해 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 등이다.



### 김 혜 린 (Hyerin Kim)

현재 경북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경북대학교 아동학부에서 학사를 취득하였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제품판매활동과 소비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SNS, 정보기술 등이다.



### 이 서 현 (Seohyun Lee)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에서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며, 경북대학교 아동학부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했다. 기술 위협 회피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성희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OTT 지속 사용 의도에 관해 학위논문을 작성하였다. 관심 연구 분야는 OTT, 소셜 미디어 등이다.



### 이 새 롬 (Saerom Lee)

현재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의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영정보학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Computers in Human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Computer & Education,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지식경영연구, 전자거래학회지, 벤처창업연구 등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개방형 협업, 기술 혁신, 기술 예측, ICT R&D 정책, 소셜벤처, 그리고 온라인 구전 등이다.

〈 Abstract 〉

#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Affecting Mobile Dependence in School-Aged Children

Hyewon Kim<sup>\*</sup>, Hyerin Kim<sup>\*\*</sup>, Seohyun Lee<sup>\*\*\*</sup>, Saerom Lee<sup>\*\*\*\*</sup>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may influence mobile dependence among school-aged children (7-9 years old), a growing social issue. Understanding the causes of mobile dependence is crucial as it can significantly impact school adaptation among these children. Given that children in this age group are greatly influenced not only by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but also by environmental factors, particularly parental influence, this research focuses on examining the psychological state of parents (e.g., parental stress, depression), parental ambivalence towards mobile use, and parental intervention in mobile use.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surveys at two different points in time. Th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al stress affects parental depression, ambivalence towards mobile use, parental intervention, and ultimately the mobile dependence of school-aged children, which in turn impacts their school adaptation. Through this study, we were able to verify the mechanisms by which parental stress and psychological attitudes toward mobile use influence mobile dependence and school adaptation in school-aged children.

Key words: Mobile dependence, Parental stress, Parental depression, Parental ambivalence, Child school adjustment, Mobile addiction

---

\*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Creative & Cultural Industr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